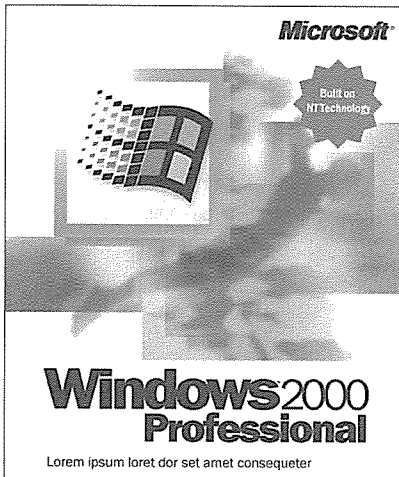




미래 PC시장 '윈도2000' 을 잡아라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2000 로고

국내 주요 PC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미래 PC 운영체제(OS) 전략에 따른 신제품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시장선점 경쟁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대우통신 LG-IBM, 세진컴퓨터랜드 등 PC업체들은 MS의 OS인 윈도2000에 쉽게 맞출 수 있는 '윈도2000 레디' PC를 개발, 3~4월경부터 시판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PC업체들이 미래 PC시장 경쟁에 각축을 벌이는 것은 MS의 OS전략 변경에 따른 것. MS에 따르면 향후 OS는 현재의 윈도98의 계보를 잇는 개인용과 윈도 NT 워크스테이션 4.0의 계보를 잇는 기업용으로 이원화된다. 동시에 이후 개발되는 OS는 개인용, 기업용

에 상관없이 모두 안전성, 보안성 등이 크게 강화된 NT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게임이나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 PC를 위해서는 윈도98이 계속 사용되게 된다. 윈도98의 다음 버전은 NT기반에서 개발되며 이름은 '윈도XX' 라는 형태가 된다. 예를 들어 2001년 OS가 발표될 경우, 이름이 '윈도2001' 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윈도98에서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하드웨어까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다. 현재 주목을 이루고 있는 PC의 사양이 이미 높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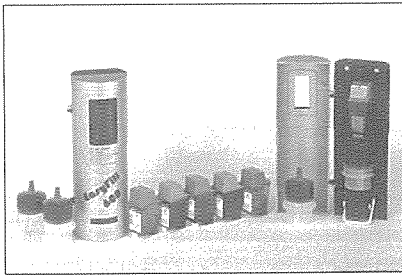
주요 PC 제조업체들이 내놓은 제품은 대부분 펜티엄 II급 중앙처리장치(CPU)에 32MB 메모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MS에 따르면, 이 정도 사양이면 윈도98 다음 버전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MS는 기업 고객을 위해 NT 기반 OS의 조속한 보급확대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의 기업 컴퓨팅 환경이 안정성, 보안성 및 Y2K 문제의 해결과 총 소유비용의 절감을 절실하게 요구하기 때문. 일본의 경우, 이같은 요구에 따라 윈도 NT 워크스테이션 4.0이 노트북 PC의 OS로도 5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MS의 NT 기반 OS 전략은 단일 플랫폼에서 응용 프

로그램을 제작하려는 주요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지난 8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MS-DOS가 OS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금, DOS기반의 프로그램 개발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주장이다. MS는 국내 OS환경의 조속한 NT기반 전환을 위해 주요 PC제조업체 및 응용 프로그램개발 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PC업체들이 개발에 들어간 윈도2000 레디 PC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차세대 업무용 OS인 윈도2000 프로페셔널에 맞게 기본 설계된 차세대 PC이다.

윈도2000 프로페셔널이 출시되면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고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응용프로그램개발 업체들도 지금까지 윈도95/98은 물론 윈도 NT에서도 작동하도록 개발해 왔다. MS는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호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 유수업체들과 응용프로그램을 NT기반으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프린터잉크 리필제품 인기

'프린터에도 값싼 리필(refill)잉크를 이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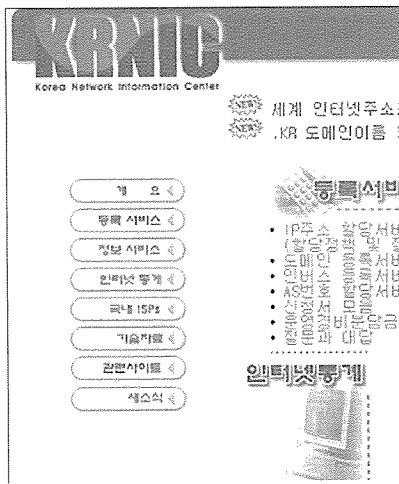
▲ 새로운 개념의 잉크젯 프린터용 리필기인 이지텍의 '이지필'

내용물만 사서 기존에 사용하던 용기에 담아 쓰는 리필제품 이용이 샴푸, 화장품 등 생활용품에 이어 프린터잉크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리필기기는 카트리지 대신 잉크만 바꾸면 되므로 프린터의 유지비용을 절반 이상 줄여주는 IMF형 상품. 마치 용기는 그대로 쓰고, 내용물만 바꿔 넣는 가정 식기세제와 같은 원리다.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국내에는 현재 5~6개 리필업체가 연간 1천억 원 이상되는 잉크젯 프린터 리필시장을 놓고 경쟁 중이다.

리필잉크 전문업체 이지텍은 손에 잉크가 묻지 않는 리필기 '이지필'을 개발, 시판 중이다. 데스크젯(HP) 500과 600시리즈용 이 기기는 카트리지와 잉크를 장착한 뒤 한번 밀기만 하면 리필이 끝나 초보자도 쉽게 쓸 수 있다. 기존 리필방식은 드릴로 구멍을 뚫은 뒤 주사기로 리필을 함으로써 손에 잉크가 묻고 카트리지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 노즐이 막히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대기압을 이용한 노즐 클리닝까지 가능한 이지필은 잉크 2개와 리필기기를 포함해 새 카트리지 가격의 절반 수준이며 리필시간도 30초에 불과하다. 벤처기업 잉크테크도 데스크젯 500-

600시리즈용 리필기를 판매 중. 이 제품은 카트리지 상단에 구멍이 없어도 잉크를 넣을 수 있으며, 값도 8천 8백원으로 싼 편이다. 잉크나라, 하이톤, 로트링 등의 업체가 5천5백~1만2천원의 저가 잉크젯 프린터 리필기를 판매 중이다. 페리칸사는 2만5천원의 주입식 리필기를 선보이고 있다.

개인 인터넷주소 전면 허용



▲ 인터넷주소를 신청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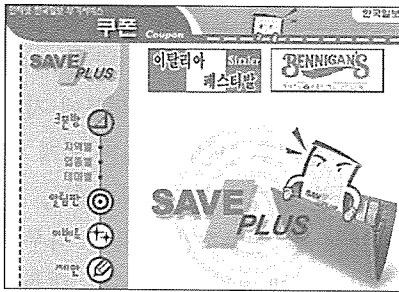
4월부터 개인도 인터넷주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인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인터넷주소인 '홍길동.com' 혹은 '홍길동.nm' 형태의 주소는 가질 수 있었으나 'kr'이 들어가는 한국 인터넷주소는 이용할 수 없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가상공간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4월중 개인에게 'kr'로 표시되는 국가관리 인터넷주소를 정식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도 '홍길동.pe.kr'과 같은 형태의 한국형 인터넷주소를 갖게 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이만기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딴 'leemanki.pe.kr' 인터넷주소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pe'는 기업을 뜻하는 'co'와 같이 개인(personal)을 뜻하는 약자. 인명 인터넷주소는 가장 먼저 등록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1호등록 이외의 동명이인은 등록이 불가능해 유사형태로 하거나 다른 단어로만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명 인터넷주소를 먼저 등록하기 위한 '인명 인터넷주소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이를 둘러싼 인터넷주소 분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그러나 성(性)만을 표시하는 '김(kim).pe.kr'이나 '이(lee).pe.kr'와 같은 개인 인터넷주소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점을 감안, 등록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인터넷주소 등록은 한국전산원 산하기구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주소는 'www.nic.or.kr'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기업당 한개씩만 허용해온 'kr' 인터넷주소를 4월부터는 2개 이상 중복 허용해하기로 했다.

'samsung.co.kr'을 운영하는 삼성의 경우 'samsung1.co.kr'식의 유사 인터넷주소를 하나 이상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인터넷 할인쿠폰 일몰 네티즌에 인기 만점

일일이 잡지나 광고전단을 뒤지지 않고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얻을 수 있는 인터넷 할인쿠폰이 물건들



▲ 월별로 테마쿠폰을 제공하는 세이브플러스의 '쿠폰마당'

값싸게 살 수 있는 알뜰생활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할인권을 모아놓은 '쿠폰 전문 사이트'만도 30~40여곳이 성업중이어서 알뜰 네티즌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할인쿠폰을 프린트만 해 가지고 가면 명기된 만큼 할인을 받기 때문에 사용도 쉽다. 쿠폰 전문사이트 몇 곳을 소개한다.

▲ 쿠폰마당 (www.saveplus.co.kr) = 할인쿠폰북 업체인 경제제민이 2월달에 오픈한 신생 쿠폰사이트. 1백50여개의 다양한 업체의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할인율은 보통 10~30% 정도인데 웨딩업체의 경우 7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10만원을 깎아주는 이삿짐업체의 쿠폰도 제공된다. 지역별, 업종별 검색이 가능하며 다달이 시행하는 '테마별 쿠폰'이 가장 인기있는 코너.

▲ 코리아푸드(www.koreafood.co.kr) = 값싸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 쿠폰을 전문적으로 취급.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천여개 식당을 지역별·음식별로 검색할 수 있다. 이 중 1백50여곳이 5~15% 정도의 할인권을 제공. 대전,

장흥, 양평 등지의 카페에서 쓸 수 있는 할인권도 제공.

▲ 쿠폰넷(www.couponnet.co.kr) = 쿠폰넷이 마련한 이 사이트에 연결하면 미용실, 안경점, 레스토랑 등 다양한 할인권을 얻을 수 있다. 알짜쿠폰 코너에서는 원하는 쿠폰을 검색해 찾을 수 있다. 이밖에도 SBS쿠폰세상(coupon.sbs.co.kr), 쿠폰클럽(www.couponclub.co.kr), 씨티넷쿠폰(www.citynet.co.kr/coupon), 알짜쿠폰(www.dcplus.co.kr), 깨비쿠폰(coupon.kebi.com) 등이 네티즌이 자주 찾는 할인쿠폰 전문사이트들이다.

아시아네티즌 113개 지역 E메일 무료로 쓰세요



▲ 무료 E메일 사이트인 아시안웹시티는 아시아 각 지역이름으로 구성된 인터넷 주소 1백13개를 제공한다.

아시아 네티즌이 살고있는 지역의 이름을 넣어 E메일로 쓸 수 있는 무료 E메일 사이트가 등장해 화제다. 96년 2천여개의 인터넷주소(도메인네임)를 등록해 화제가 됐던 황의석씨가 재미교포 민디 김(Mindy Kim)과 손잡고 만들어 지난 연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아시안시티웹(www.asiancityweb.com)이 바로 그 곳. 아시안시티웹은 아시아 네티즌들의 편의를 위해 무려 1백13여개

의 아시아지역 인터넷 주소를 제공한다. 한국·일본·중국·몽골 등의 주요 지역과 도시이름을 무료 E메일의 도메인네임으로 쓸 수 있다. 1백13여개의 지명중에서 자신의 주거지나 활동하는 지역, 고향 등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골라 E메일 ID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에 살면 '△△△@pusan.com', 일본 히로시마는 '△△△@hiroshima.com', 중국 북경은 '△△△@beijing.org' 등 자신의 지역을 표현하는 E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춘천, 제주 등 대도시 및 종로, 명동, 이태원, 인사동, 신촌, 동대문, 남대문 등과 함께 평양(pyongyang.com)까지 16개의 도메인네임을 제공한다. 비즈니스를 위해 명함에도 E메일 ID를 넣는게 필수인 요즘은 1천만명이 같이 쓰는 도메인네임은 특정 인물을 표현하기에 부족했던 것. 아시안시티웹은 중국·한국·일본·몽골 등 동아시아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서비스한다. 중국의 경우 성급 행정구 40개와 주요도시 9개 등 모두 49개, 일본은 현금 행정구 49개와 도시 4개 및 신주쿠, 아키야바라, 하라주쿠 등 유명거리를 포함해 모두 56개의 도메인네임을 제공한다. 물론 몽골같은 곳은 'mongol.com' 한개로 제한된다. 도메인네임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등록해놓은 덕에 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삼은 방대한 무료서비스가 가능했다. 황의석씨는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는 거의 20억에 육박한다"며 "특히 중국의 인터넷 사용이 폭증하고 있어 엄청난 수의 가입자를 쉽게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해피텔레콤 '삐삐로 직접 음성통화한다'



▲ 해피텔레콤 직원이 삐삐를 친 후 곧바로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국내 최초 고속삐삐서비스 사업자 해피텔레콤은 2월부터 음성사서함(VMS)을 이용, 전화 한통화로 호출은 물론 음성통화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삐삐폰' 서비스에 들어갔다. 삐삐폰 서비스는 호출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호출번호로 전화를 걸어 삐삐폰 서비스를 선택한 후 전화를 끊지 않고 잠시 기다리면 호출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3분 이내에 자신의 음성사서함에 전화를 하여, 호출한 사람과 음성사서함 안에서 최고 3분동안 직접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때 호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삐삐에 찍힌 숫자메시지 앞에 표시된 '77'을 보고 상대방이 삐삐폰 서비스로 전화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전화하게 된다. 해피텔레콤은 삐삐폰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호출하는 사람이 특정

한 숫자메시지나 이름을 녹음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쉽게 알릴 수 있게 하였고, 3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화를 해오지 않아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상시처럼 숫자 또는 음성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게 하였다.

모의역사게임 인기폭발



▲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컴뱃플라잇시뮬레이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역사를 바꿔볼 수 있는 PC용 모의역사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시저Ⅲ', '징기스칸Ⅳ', '월드워Ⅱ파이터스', '컴뱃플라잇시뮬레이터' 등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모의역사게임. (주)SKC에서 출시한 '시저Ⅲ'는 사용자가 로마제국의 황제였던 시저가 돼 볼 수 있는 게임이다.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면 작은 마을의 읍장으로 출발한다. 여기서 도시계획을 세워 각종 건물을 짓고 경제력을 발전시켜 주변국들과 무역을 벌이고 강한 군대를 양성해 주변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 된다. 최종목표는 전 유럽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는 것이다. 이 게임은 영화를 보는 듯한 정

교한 그래픽과 모든 등장인물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인공지능기법을 쓰며, 한글로 표시되는 메시지 덕분에 지난해 말 출시후 1만5천여개가 넘게 팔릴 만큼 인기가 높다. 경제이론, 도시계획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져 두뇌싸움을 좋아하는 전문가들에게 적합한 게임이다. (주)비스코가 선보인 '징기스칸Ⅳ'는 원나라를 세운 몽고의 황제 징기스칸의 일대기를 다룬 게임이다. 사용자는 징기스칸이나 주변인물, 또는 고려 임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영토를 확장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선대에 못다 이룬 일들은 자식을 낳아 후대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세습기능이 특징이다. 모든 메시지가 한글로 표시되므로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다. EA코리아에서 내놓은 '월드워Ⅱ파이터스'는 사용자를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투기 조종사로 만들어준다. 영국, 미국 등의 연합국 조종사나 독일 조종사가 돼서 당시 유명전투기들을 몰고 공중전을 벌일 수 있다. 전투기는 물론이고 배경, 지상풍경 등이 영화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그래픽 때문에 사용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원활하게 게임을 즐기려면 3D그래픽카드를 갖춘 펜티엄Ⅱ급 이상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 판매를 시작한 '컴뱃플라잇시뮬레이터'도 2차 세계대전의 전투기 조종사들을 다룬 게임이다. 진행방식은 '월드워Ⅱ파이터스'와 비슷하나 조종방법이 실제 전투기에 더욱 가까워 전문가들이 즐겨 찾고 있다. ①